

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가이드

내 농장 여름나기 준비를 점검해 보자.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매우 더운 만큼 농장의 여름나기도 철저히 준비되어야만 한다.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사료가 변질되고 병원성미생물이 증식하는 등 가축의 소화기질환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,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시에는 토양유래성 질병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.

특히 길고 긴 장마철이 지나간 이후에는 파리와 모기가 증가해 질병 전파가 쉬워지며, 혹서기에는 열사병, 곰팡이중독 등 기후성 관련 질병도 우려되므로 농장 방역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. 혹서기 방역관리 요령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자.

혹서기 일반 방역관리 요령

■ 혹서기 온도·환기 등 방역관리

- 고온다습한 날씨 지속시 방목 금지 및 운동장에 차양막 설치
- 축사 벽·지붕에 단열재 시공 및 환풍기를 설치하고, 주기적인 강제 환기 실시로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
- 축사 및 운동장의 분뇨제거 등으로 건조상태 유지
- 축사 내·외부 및 주변부 물웅덩이 생성방지 및 소독 실시

■ 방역·사양관리

- 신선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질병 예방차원에서 비타민제, 대사촉진제 및 칼슘·소금 등 미량 광물질을 급여
- 사육단계별 권장사료를 급여하고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 사용을 금지
- 방충망, 모기 유인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구충작업 실시
- 열사병, 기립불능증 등 질병 발생시 인근의 수의사에게 신속한 진료의뢰 또는 관찰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
- 사양관리인 등 양축가의 사양·방역관리 철저

수해발생시 축종별 일반 방역관리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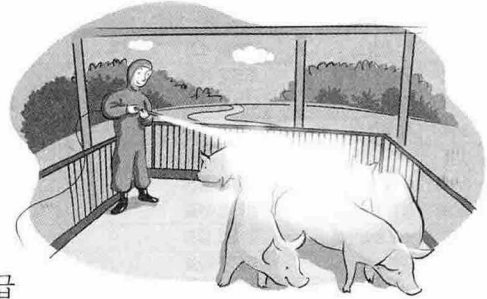
- 호흡기질병 증가 우려로 밀사를 피하고 환기 개선
- 창상에 따른 토양유래성 질병인 돈단독 및 클로스트리디움증 등과 같은 질병 예방접종 철저
- 홍막폐렴, 전염성위장염, 유행성설사병 및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등에 대한 예방접종 철저
- 충분한 초유공급 및 보온관리 철저
- 무유증 예방관리 철저 및 전해질공급 실시

-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축사내외 및 주위웅덩이 모기구제 철저

질병 예방관리

■ 열사병

-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가축의 몸에 찬물 살포
-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 되도록 환풍기 설치 · 가동
- 축사(벽, 지붕)에 단열재 설치
- 발생시 수액 · 영양제 공급, 충분한 양의 물과 영양공급



■ 모기매개성질병

- 축사 주위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살충제 살포로 모기 방제
- 축사에 방충망 및 모기 유인등을 설치하고 철저한 소독 실시
- 백신접종 대상질병(아까바네, 유행열)의 예방접종 조기 완료
- 의심축은 개업수의사에 진료요청 또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(수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환축에 영양제 및 전해질 공급, 필요시 추가 예방접종 실시)

■ 살모넬라감염증, 자돈 대장균성 설사증 등 소화기 질병

- 살모넬라감염증 예방요령 및 치료대책
 - 돈사 내에 소독철저 · 청결유지
 - 발병돼지 격리 · 치료 및 만성감염 돼지 도태 · 제거
 - 돼지가 출하된 후 돈사에 대한 세척 · 소독 실시 후 돈사가 충분히 건조된 다음 돼지 입식이 바람직(일정기간 후 입식)
- 자돈 대장균성 설사증 예방요령 및 치료대책
 - 분만사 청결유지 및 신생 자돈에 충분한 초유 공급
 - 분만전 모든 대장균 백신접종으로 자돈에 면역항체 공급
 - 탈수 방지를 위한 전해질 공급
 - 원인 대장균에 대한 약제 선발 및 3~5일간 항생제 투여



■ 돼지일본뇌염

- 모돈 등에 예방접종 철저
 - 모기 출현 시기 이전에 모돈에 대해 2회(1차 : 4~5월경, 2차 : 2~4주후) 실시하는 등 항체 양상을 향상 위한 노력 필요
- 양돈장 사양 환경 개선
 - 여름철 무더위 및 장마철에 대비한 철저한 소독 실시
 - 축사 주위 물웅덩이 제거 및 방충망 설치로 모기 발생 억제 **양돈**